

16th
JEONJU INT'L
SORI
FESTIVAL

2017 연차보고서 >>>
Annual Report



보이는 색 뒤로 겹쳐진 보이지 않는 빛깔을 상상합니다.
빛을 마주할 때까지 통과해 온 여정을 기억합니다.

월드뮤직, 숨겨진 소리를 발견하고
전통음악, 익숙한 음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준비, 과정의 가치를 칭찬하고
축제, 결과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일

들려오는 소리, 화려한 무대 뒤 숨겨진
아티스트의 땀, 관객의 기쁨을 생각합니다.

그윽한 색의 깊이를 따라, 선명한 빛의 자부심을 따라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다채로운 빛깔의 'Color of Sori'를 시작합니다.



**제6회 2017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4년 연속 대상 수상 2017.1.**

중앙일보 포브스 코리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일보, JTBC가 후원하는 시상식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공공행정 지역축제 부문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함. 전문가와 소비자들이 뽑은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감

**2016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지원화 지원사업,
최우수 A등급 획득 2017.5.**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전국의 '2016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지원화 지원사업 대상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A 등급을 받음. 이로써 소리축제는 지난 2014년 이후 축제 평가 결과, 4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을 받으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제로 우뚝 섰음을 증명함.



Contents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요	04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현황	06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체 방문객 현황	07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체 만족도	09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세부 항목별 만족도	10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방문객의 축제성과 평가	11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재방문 및 추천의향	12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경제적 파급효과	13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한눈에 알아보기	14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주요 성과	16
언론이 본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20
외신, 아티스트가 만난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21
관객이 본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22
전주세계소리축제 연보	24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26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사무국 STAFF	27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자원활동가	28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후원·협찬	29

축제개요

주제 COLOR OF SORI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는 'Color of Sori(때깔 나는 소리)'를 주제로 다양한 '소리'의 스펙트럼을 펼쳐냅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고 인식해 온 '소리'의 영역을 다채로운 실험과 시도로 확장합니다. 귀로 듣는 소리에서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소리로, 익숙한 소리(음악)에서 낯설고 생소하고 호기심 어린 소리로,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며 소리의 스펙트럼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특히 전통음악과 월드뮤직이라는 두 동력이 갖는 고유의 색채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개막공연을 통해서는 과감히 융합되고 수용되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Color of Sori(때깔 나는 소리)'의 주제성을 뚜렷이 합니다. 더불어 올해 최고의 화제작 '어린이체험전시'는 첨단 디지털과의 만남을 통해 21세기 소리의 미래, 꿈의 소리 세계를 제시합니다.

- 기 간 2017년 9월 20일(수)~24일(일) / 5일간
-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등
- 프 로 그 램 6개 분야, 165여회 공연
공식행사(개·폐막공연), 기획 및 초청공연,
어린이소리축제, 부대행사 등 총 6개 분야
- 참여국 및 인원 32개국 1,100여명
- 주 최 전라북도
- 주 관 사)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포스터



Since 2001
44,113명 아티스트
 모든 것이 가능한 꿈의 무대!
 넓은 세계로 떠나는 플랫폼!
 자연과 음악, 사람이 만나는 곳
 매해 가을,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준비합니다

2017 프로그램 현황

공식행사

프로그램	내용
[개막공연] 'Color of Sori'(때깔 나는 소리)	2017 주제를 담은 개막공연. 판소리, 월드뮤직이 대중가수, 성악가, 무용수와 만나 9개 다양한 장르의 갈라쇼를 선보인다. (KBS전주 생중계)
[폐막공연] 골든마우스쇼	대중적인 콘셉트의 폐막공연. 판소리와 비트박스, 힙합, 랩 등 판소리와 새로운 장르의 만남을 시도한다

기획공연

프로그램	내용
[판소리다섯바탕] 박지윤, 윤진철, 방수미, 김세미, 남상일	명인 명창의 농익은 소리를 지역 작가의 작품으로 변신한 모던한 갤러리 무대에서 만난다
[산조의밤]이태백, 강정열	한국 기악 독주의 백미 '산조'를 선보이는 명인들의 무대
[광대의노래] 고집(鼓集)	이 시대 진정한 광대, 전통음악을 향한 정중한 예우, 타악 명인들의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예술성을 지닌 무대
[젊은판소리다섯바탕] 이광복, 고준석, 이다은, 민현경, 신진원	공모를 통해 선발된 20~30대 젊은 소리꾼들의 판소리다섯바탕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소리프론티어	한국형 월드뮤직 경선 프로그램, 7월 치러진 실연예선을 통과한 3개팀이 축제 현장에서 본선을 치르고 상금과 해외 진출의 혜택을 얻는다. 악단광칠이나래,조영덕트리오
월드뮤직빅파티	야외공연장에 적합한 페스티벌형 월드뮤직공연 김반장과 윈디시티,모션트리오,부두게임
[더블빌] I, B3 Paradigm, II, 터키 아일라 민속음악과 유지숙의 서도 토속민요, III, 이란에서 한국, 실크로드를 따라 온 소리	한국전통음악과 해외전통음악의 수준 높은 비교음악화로 새로운 무대를 개발하여 집중도를 높인다. 국경을 넘어선 음악의 공통점, 혹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 등을 감상한다.

국내초청

프로그램	내용
창무극 천명(天命)	전라북도립국악원과 정읍시립국악단이 함께하는 동학을 주제로 한 대한 대형 야외 창무극
CBS와 함께하는 별빛콘서트	CBS전북방송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중음악 공연
전라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	2017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사업에 선정된 지역유지선들을 위한 레드콘분수대 무대를 마련하고 해외초청팀과 콜라보 기회를 제공했다.
신대학창극 Young 판 판 (쌈 구경가자, 新뽕파진)	기존의 대학창극의 확대 개편 버전, 국악전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재기발랄한 창극 무대로 꾸며진다.
홍신자의 아리아리 아리아리, 젊은산조(산조배틀), 강릉시천하평당교놀이, 젊은정가(국악대학전), 소미더소리 with 나니레,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아트, 에이아트(세기의 춤을 보다-영작), 모던판소리, 가온스토리클래식,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양상블 하나, 연음술사, 가악 프로젝트, 서커스맨 리썸, 마린보이 서커스, 전주청춘취타대, 등	



해외초청

프로그램	내용
마르코폴로의 음악여행	우드 연주자 키리아코스카 5년 여정의 세월을 통해 마르코폴로의 행적을 관찰하며 동서양 음악이 조우하는 과정을 상징해낸 작품
미리아나 바라흐, 쿠아트르 미니말, 콜링, 잇아다우, 라티팡파르, 에티노폴리스, 티엠포스 누에보스, 오스쿠로 퀴넨, 인터내셔널액터스앙상블, 국립극장 문화동반자, 주진타이코, 콜레칸, 라라 스크드 하이드 등	

어린이소리축제

프로그램	내용
[어린이미디어체험전시] 공짜공짜 알록달록 그레, 나는 미술이다!	현대미술과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어린이전시프로그램
어린이공연	원손이,제비씨의 크리스마스, 얼렁뚱땅 국악밴드의 조선시대 코끼리 살인사건,평강공주와 온달바보
소리배움터	어린이 대상 국악 배우기 프로그램 (강령탈춤배우기, 가야금배우기)
전라북도어린이대음악제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의 합동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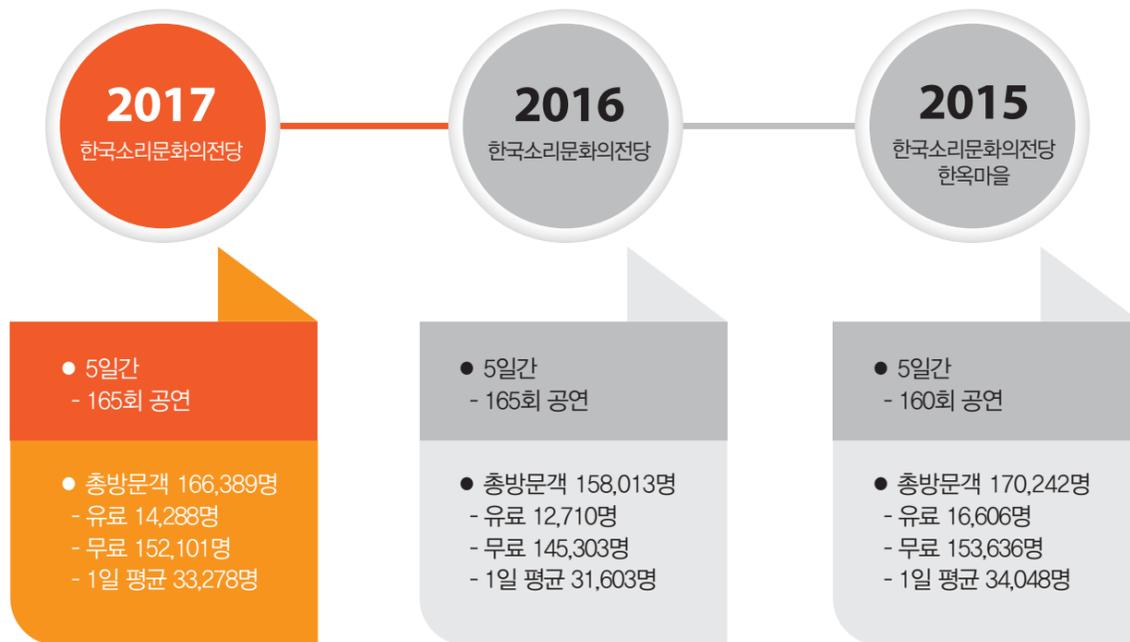
부대행사

프로그램	내용
찾아가는소리축제	전라북도 14개 시군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해외월드뮤직워크숍, 전라북도교육청과 연계해 진행한다.
나도야소리꾼	아마추어소리꾼 경연대회
마스터클래스	전통 국악명인들의 예인의 삶을 담은 작은 사랑방 (윤진철, 유지숙)
월드뮤직워크숍	세계 월드뮤직과 악기에 대한 해설과 미니콘서트
리딩아트	하나의 예술이 가치를 밝히기 까지 과정을 살피는 프로그램
진로탐험콘서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축제 속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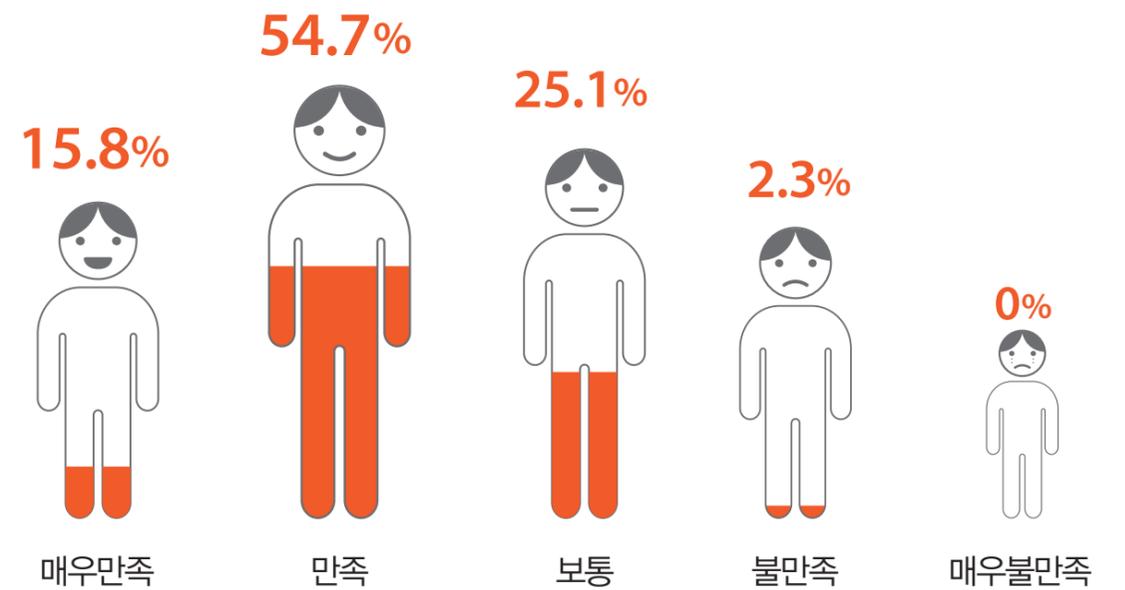
5일간 약 **16만명** 방문,
유·무료 관객의 꾸준한 증가
모든 이의 눈과 귀가 주목하는 곳!

관람객 **95.6%**
보통이상 만족

마니아, 일반 관객 모두가 사랑하는 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 방문객 현황 (201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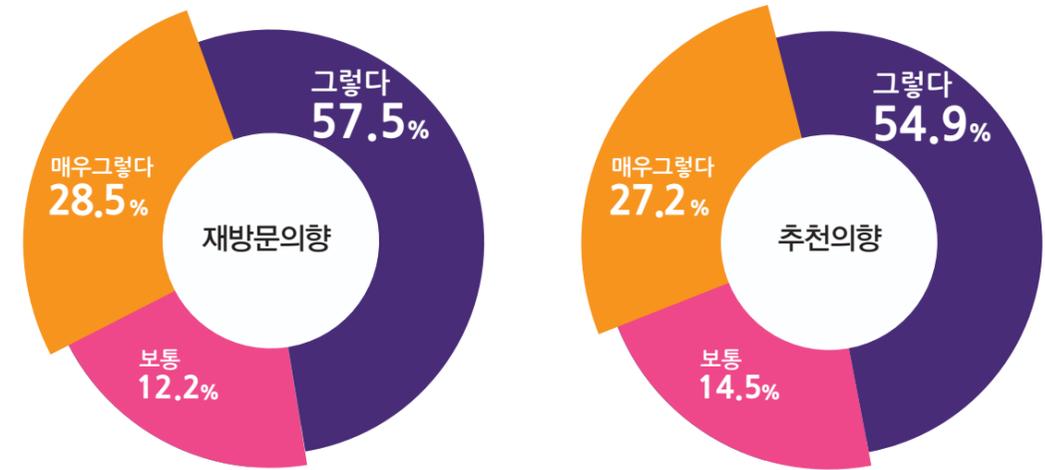


[전체 만족도]

축제 전체 분야, 세부 항목별 만족도 높아 공간 및 프로그램 등 축제 전 분야 섬세한 운영!



믿고 보는 축제, 다음 해에 다시 만나요!
 관객 100명 중 98명 “다시 오고 싶은 축제”
 96명 “추천하고 싶은 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재방문 및 추천의향]

항목	방문경험별		유료공연 관람여부	
	처음 방문	재방문	무료관람	유료관람
재방문의향	4.06	< 4.10	4.12	< 4.28
추천의향	4.29	> 3.66	3.99	< 4.20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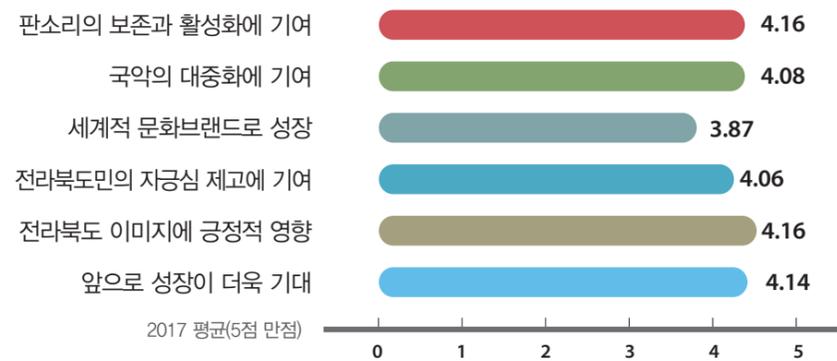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재방문 및 추천의향]

응답자의 특성별로 소리축제 재방문 의향을 분석해보면 축제에 여러 번 와 본 사람일수록, 유료로 프로그램을 관람한 사람일수록, 공연을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재방문 의향이 높았음.

“판소리 보존 활성화”,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축제

소리축제, **260**억원 직간접 경제효과

생산파급효과 153억원,
부가가치파급효과 83억원,
소득 파급효과 37억원 등



[전주세계소리축제 방문객의 축제성과 평가]

5개 문항에 대한 의견이 평균 4.0점 이상으로
2017년 소리축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파급효과		총 파급효과
	전북 지역	타 지역	
생산	11,183백만원	4,082백만원	15,265백만원
고용	260명	37명	297명
부가가치	6,555백만원	1,731백만원	8,286백만원
소득	3,047백만원	642백만원	3,689백만원
수입	299백만원	666백만원	965백만원
조세	548백만원	261백만원	809백만원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결과]

또한 소리축제 방문객들의 소비지출액 약 80억원과 소리축제 예산 파급효과 약 27억원, 그리고 소리축제 개최기간에 소리축제 행사장을 방문한 방문객들의 관광 파급효과 약 153억원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의 직간접 경제적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됨.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한 눈에 돌아보기



1월



'2017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공공축제 부문 4년 연속 수상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지역축제 고유의 브랜드로서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만족도, 신뢰도를 인정받으며 꾸준한 사랑을 4년 연속 인정받았다. 우리전통음악인 '판소리'를 주요 콘텐츠로 다루면서 월드뮤직과 교류하는 문화브랜드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대내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3월



2017 프랑스 바벨 메드 뮤직 마켓 참가

소리축제는 유럽의 중심이자 세계월드뮤직시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2017 프랑스 바벨메드 뮤직 마켓의 중심에서서 아티스트들의 러브콜과 해외외신기자들의 취재 요청 등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세계 주요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관 및 축제와 논의하고 음악시장의 동향을 탐색했다. 2017 소리프론티어 1등 팀에게 2018 바벨메드뮤직 쇼케이스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5월



대표적 공연 예술제 최우수 A 등급 언어

소리축제가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에 전국의 다양한 축제와 공연예술제의 선진사례로 거론되며 국내외 공연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과 시선을 모았다. 새로운 시도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창의적인 축제 공간 발굴, 노하우를 갖춘 체계적인 준비 과정과 관람객 배려가 돋보인 섬세한 운영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해외 시장의 끊임없는 활로 개척 등 연간 축제 조직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축제의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았다.

8월



한풀프로젝트 '쇼팽&아리랑' 4개년 프로젝트 완결판

2014년 한국과 폴란드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며 시작된 '한풀 프로젝트 쇼팽&아리랑'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4개년 대형 프로젝트를 마감했다. 2014년 소리축제를 시작으로 매해 양국을 오가며 공연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문화 교류와 협력을 이어 온 결과다. 올해는 폴란드 크라쿠프 도시에서 열린 댄스 페스티벌에 참여, 작년 소리축제 무대에 이어 양국의 전통음악에 전통 춤이 더해진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였다. 소리축제는 앞으로도 폴란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활발한 문화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7월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소리프론티어 공개 실연 예선 '악단광칠, 이나래, 조영덕트리오'본선 진출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한국형 월드뮤직 창작자들을 위한 '소리프론티어' 공개 실연 예선을 서울 플랫콤창동61에서 진행, 일반 관객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젊은 관객층에게 한국형 월드뮤직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악단광칠, 이나래, 조영덕 트리오가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KB소리상, 수림문화상, 프론티어상 등 창작지원금과 해외 무대 진출권을 놓고 본선 무대에 오른다.

7월



2017 프로그램발표회 미디어(Media)! 글로벌(Glocal)! 유스(Youth)! 제너레이션(Generation)!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017 소리축제의 사업방향과 라인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했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을 주축으로 언론기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을 초청해 축제의 주안점과 출연진들을 소개했다. 또한 올해 축제의 맛보기 공연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다. 특히 '미디어체험전시'로 활용될 특별한 공간인 전시장을 프로그램발표회 장소로 활용하며 색다른 분위기로 기대감을 높였다.

6월



어린이그림공모 최우수작품, '전라북도교육감상' 수여

'공짜공짜 알록달록 소리그리기'를 주제로 진행된 어린이 그림 공모를 통해 역대 최대 작품수가 접수됐다. 올해는 접수된 작품 전체를 '미디어체험전시'의 콘텐츠로 활용하기로 해 더욱 큰 호응을 얻어냈다. 또한 그간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노력 등 소리축제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우수 작품에 '전라북도교육감상'을 수여했다.

9월

11월



레드콘 음악창작소 선정팀 '송장벌레', '모던판소리' 해외 공연 추진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소리축제가 개발하고 구축해 온 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동원해 레드콘 선정 팀들을 위한 해외 무대를 발굴, 최종 협의를 이끌어 냈다. '송장벌레'는 인도의 인디어스 엑스체인지 음악마켓의 쇼케이스에 초청, '모던판소리'는 말레이시아 페낭 아일랜드 재즈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다. 소리축제는 해외 네트워크 및 감독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뮤지션들의 창의적이고 광범위한 연주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2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찾아가는 소리축제' 진행

매해 300여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소리축제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긴밀히 협력하며 축제의 핵심 영역인 '자원봉사'부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전 안전 교육 및 축제 현장 셔틀 제공 등 행복하고 안전한 자원봉사를 위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소리축제'를 진행해 그 동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봉사의 의미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12월



송구영신 의미 더할 특별한 화제작 '조선왕 맥베스' 무대 올려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전북의 음악팬들에게 송구영신의 의미를 더할 특별한 화제작을 소개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지역 순회 공연을 기획하면서 전통예술을 주제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확장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소리축제에 전주 공연의 공동 주관에 제안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우리 전통예술의 만남을 담은 화제작 '조선왕 맥베스'를 통해 전북 도민들에게 우리 전통예술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JEONJU INT'L SORI FESTIVAL
전주세계소리축제
 COLOR OF SORI
 2017 9.20 ~ 24일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주요 성과



미디어체험·현대미술展
'꽁작꽁작 알록달록, 그래 나는 미술이다!' 진행

소리축제는 미디어와 현대미술의 접목을 시도한 다채로운 작품을 대규모 전시장에 풀어놓음으로써 소리와 미디어, 체험 콘텐츠 등 미래 세대들에게 창의적이고 상상력 가득한 경험을 안겨주었다. 축제 시작 약 3주 전부터 진행, 폭넓은 콘텐츠를 도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축제의 지경을 넓혔다.



세계 최초
판소리 VR 영상 제작

소리축제는 전주한옥마을의 한옥을 배경으로 '판소리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을 진행했다. 최첨단 트렌드인 VR 개념을 도입해 판소리 무대를 사전 VR 영상으로 제작한 것. 해당 영상은 축제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실제 판소리 공연을 보는 듯한 실감나는 영상체험을 제공했다.



개막공연 전주KBS 생중계 진행

올해 개막공연 'Color of Sori(따갈 나는 소리)'를 전주KBS 생방송으로 추진,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소리축제를 알리고 전통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소리축제의 얼굴인 '개막공연'을 전주 KBS 방송 및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 동시 생방송으로 송출함으로써 현장을 찾지 못한 관객들이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무대의 발견

매해 공간 구성을 달리하며 새로운 무대를 개발하고 있는 소리축제. 올해는 모악당 앞 광장을 더블스테이지로 꾸몄다. 관객들은 앞으로 준비된 무대를 연속으로 감상하며 색다른 재미를 느꼈다. 월드뮤직전문관인 음악의집은 블랙박스형의 소규모 공연장으로 보다 집중된 분위기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레드콘 음악창작소 사업에 선정된 지역 아티스트들을 위한 분수대 무대는 아티스트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나는 너의 플랫폼,
'해외시장'을 향해 싸라!

소리축제는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 음악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지역의 아티스트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활약, 축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수출 및 축제 및 아티스트 간 협업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프랑스 바벨메드 뮤직마켓 참가(3월)

세계 월드뮤직 시장의 아티스트, 축제, 기관, 에이전트 등 음악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장, 음악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아티스트, 협력 가능한 축제 및 기관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6 소리프론티어 1등팀(KB소리상)
'동방박사' 타이완 TFM 참가(4월)

지난해 소리프론티어 우승팀인 동방박사는 1등 수상팀에게 주어진 혜택, 타이완의 TFM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한·폴 프로젝트 쇼팽&아리랑, 폴란드 크라쿠프 궁중 무용축제 참가(8월)

'한폴프로젝트 쇼팽&아리랑' 4년차를 맞아 폴란드 크라쿠프 도시에서 열린 궁중 무용축제에 참여했다. 한국 전통무용 워크숍 및 우리음악과 춤이 결합된 공연을 선보였다.

• 레드콘 음악창작소 지역아티스트,
해외공연 추진(11월)

레드콘 음악창작소 선정 팀 중 송장벌레와 모던판소리의 해외공연을 추진했다. 송장벌레는 인도 인디어스 엑스 체인지, 모던판소리는 말레이시아 페낭 재즈페스티벌에 초청됐다.

• 2017 소리프론티어를 위한 2018 세계무대

소리프론티어 1등팀(KB소리상)으로 선정된 이나래 팀은 2018 타이완 코리안 포커스 등 해외 진출 무대의 기회를 얻게 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로탐험콘서트', '찾아가는 소리축제'

올해는 전시기획자 '이정운 작가'와 함께 '진로탐험콘서트'를 진행, 축제 뒤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을 만나보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라북도 14개시·군 초·중·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월드뮤직워크숍 '찾아가는소리축제'를 진행, 학생들에게 풍성한 월드뮤직을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소리배움터'에서는 '강령탈춤배우기'와 '가야금배우기'가 진행됐다.

보다 깊고 보다 넓게!
'Reading Arts' 등 신설 프로그램

소리축제는 일반적인 공연 외에도 아티스트의 삶과 연주 인생을 토크쇼 형식으로 만날 수 있는 '마스터클래스', 이색적인 월드뮤직을 가까이서 만나고 체험해보는 '월드뮤직 워크숍'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하나의 예술이 빛을 밝히기 까지, 작품 뒤 가치와 과정에 집중하는 '리딩 아트(Reading Arts)'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새로운 형태의 부대행사를 통해 다양한 관객층의 요구와 기대를 수용하며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말!말!말!



언론이 본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연합뉴스
2017.9.24

"야외공연장 등에서 열린 퍼포먼스형 공연과 미디어 전시도 관객의 몰입도와 참여도를 높여 '축제형 공연'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전북일보
2017.9.24

"소리축제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나갔다. 특히 전략적인 공연 편성으로 다양한 세대를 공략한 점이 돋보였다. 더블스테이지를 중심으로 펼친 퍼포먼스가 결합된 다양한 국내외 월드뮤직 공연도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전라일보
2017.9.24

"꾸준히 검증을 받았던 한국과 외국 아티스트들의 협업은 여전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 서커스나 연극적 요소 등이 결합된 퍼포먼스형 공연이 많아졌다는 점은 관객 몰입도를 높이고 축제형 공연, 체류형 공연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눈길을 끌었다"

뉴시스
2017.9.24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송출되는 소리TV가 출연자들과 SNS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효과적인 홍보는 물론 세계소리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좋은 매개가 됐다는 평이다"



외신, 아티스트가 만난 2017 소리축제!



"젊은 예술가들의 주도 아래 한국의 판소리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이 모든 실험은 전통의 경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실험성을 장려하며 전통의 근간을 흔들어보자는 것.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게 편곡한 작품과 전통 그대로의 음악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점이 인상적이다"

◦르몽도 도쿄 특파원 | 필립 메스메르(Philippe Mesmer)



"주말 동안 축제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름다운 날씨였다. 관객이 어떻게 하나의 유기체로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은 때때로 신기했다. 아티스트가 요청하기만하면 관객들은 춤을 추었다"

"나는 한국의 전통적이고 혁신적인 현상에 전적으로 몰두했다. 또한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지역의 관객들에게 현대적이고 서구적이며 세계적인 행동을 볼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네덜란드 월드뮤직 전문기자 | 찰리(Charlie Crooijmans)



"소리축제는 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접목하는 실험을 하는 축제 같아요. 다른 세대들과의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소리꾼으로서 굉장히 뿌듯해요. 우리음악이 세계음악과 소통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음악에 대한 판소리의 뛰어난 위대함을 새삼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박지윤 명창



"개막공연 오프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도 귀한 기회였어요. 판소리의 특별한 발성법과 우리가 연주하는 특이한 악기의 소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앤 호르데스(En Chordais) | 키리아코스 칼라이치디스(Kyriakos Kalaitzidis)



전주세계소리축제 말!말!말!



관객이 본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JasMine님

"편백나무숲은 축제와 상관없이 누워 잠을 청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곳이었는데 해먹에 편안히 누워 그리스 팀의 수준 높은 연주를 감상하니 어느새 근심걱정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바인님

"여러 포토존에서 예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이번 소리축제도 예뻐서 대만족! 예쁜 공간이 많아서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축제가 전주에서 열린다니! ... 낮에 느껴지는 밝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있는 반면 저는 낮에는 느낄 수 없는 소리축제의 밤 분위기를 더 좋아해요"

야옹군님

"편안하게 야외공연장에 앉아 먹을거리를 즐기며 보는 공연. 탁 트인 공간에서 창무극을 보게 되니 이게 바로 소리축제의 묘미구나 싶었어요"



누롱지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전통음악으로 하나 되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무대였어요. 판소리와 함께 전 세계 음악인들의 공연으로 풍성했던 이번 소리축제. 신기하면서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전주세계 소리축제 연보

2017

관객과의 소통을 확장하며 판소리와 한국음악의 현대적 보편성 확보

- 주제 Color of Sori(때깔 나는 소리)
- 일시 2017년 9월 20일(수) ~ 24일(일)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 조직위원장 김한
- 집행위원장 박재천
- 공연팀 33개국 1100여명
- 프로그램 43개 165여회 공연

2016

'모던한 공연예술'로서 판소리의 가능성 실현 축제공간의 만족도를 높여 '체류형 축제'로의 변화

- 주제 세상의 모든 소리
- 일시 2016년 9월 29일(목) ~ 10월 3일(월)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 조직위원장 김한
- 집행위원장 박재천
- 공연팀 1,300여명
- 프로그램 60개 160여회 공연

2015

비교음악제 확대를 통한 세계축제로서의 위상 강화

- 주제 소리 Big Party
- 일시 2015년 10월 7일(수) ~ 10월 11일(일)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2014

국악의 다변화로 현대와 소통하는 축제

- 주제 대마디 대장단
- 일시 2014년 10월 8일(수) ~ 10월 12일(일)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 조직위원장 김한
- 집행위원장 박재천
- 공연팀 29개국 1300여명
- 프로그램 52개 프로그램 203회 공연

2013

국악 대중화를 통한 세계축제로서의 면모 갖추기

- 주제 아리아리랑 소리소리랑
- 일시 2013년 10월 2일(수) ~ 10월 6일(일)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 조직위원장 김한
- 집행위원장 김형석, 박칼린
- 공연팀 37개국 2,834명
- 프로그램 51개 프로그램 295회 공연

2012

국악대중화를 통한 소리축제의 위상 강화

- 주제 소리 한상 가득
- 일시 2012년 9월 13일(목)~9월 17일(월) 5일간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 조직위원장 김한
- 집행위원장 김형석, 박칼린
- 공연팀 18개국 1,529명
- 프로그램 41개 프로그램 252회 공연

2011

판소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화와 대중화 시도

- 주제 이리오너라 UP GO 놀자!
- 일시 2011년 9월 30일 ~ 10월 4일(5일간)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일원
- 위원장 김한 • 집행위원장 박칼린, 김형석
- 공연팀 9개국 1,161명
- 프로그램 50개 프로그램 301회 공연

2010

판소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화와 대중화 시도

- 주제 창조, 열정, 놀이
- 일시 2010년 10월 1일 ~ 10월 5일(5일간)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일원, 전북대삼성문화회관
- 위원장 김명근 • 총감독 김정수
- 공연팀 9개국 3000여명
- 프로그램 44개 프로그램, 213개 공연 및 행사

2008

판소리 공연의 전진배치로 정체성 확보 및 대중성 강화

- 주제 소리, 오락
- 일시 2008년 9월 26일 ~ 10월 4일(9일간)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전주 시내 일원
- 위원장 안숙선
- 총감독 안영수
- 공연팀 16개국 280개팀 3,800여명
- 프로그램 70개 프로그램, 225개 공연 및 행사

2007

판소리 중심의 월드뮤직 축제

- 주제 소리, 몸짓
- 일시 2007년 10월 6일 ~ 10월 14일(9일간)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시내 일원
- 위원장 안숙선
- 총감독 곽병창
- 공연팀 10개국 131개팀 2840여명

2006

지역 정체성 확보와 우리음악의 월드뮤직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동참하는 세계화에 초점

- 주제 소리, 놀이
- 일시 2006년 9월 16일 ~ 9월 24일(9일간)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일원
- 위원장 안숙선
- 총감독 곽병창
- 공연팀 22개국 184개팀 2,692여명

2005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장르와의 연계를 통해 전 세대가 공감하는 축제

- 주제 난(亂), 민(民), 협률(協律)
- 일시 2005년 9월 27일 ~ 10월 3일(7일간)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 일원
- 위원장 안숙선
- 총감독 곽병창
- 공연팀 25개국 190개팀 4,600여명

2004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장르와의 연계 및 확산을 통해 전 세대가 공감하는 축제

- 주제 소리! 경계를 넘다!
- 일시 2004년 10월 16일 ~ 10월 22일(7일간)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대학교 일원
- 위원장 안숙선
- 총감독 곽병창
- 공연팀 14개국 190개팀 2,800여명

2003

세계음악의 보편성과 축제성을 토대로 판소리가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모색

- 주제 소리, 길, 만남
- 일시 2003년 9월 27일 ~ 10월 5일(10일간)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전통문화센터
- 위원장 천이두
- 총감독 임진택
- 공연팀 14개국 172개팀 5,000여명

2002

한국전통음악이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 세계적 음악을 포괄하는 종합축제 (예술축제 + 산업형 축제)

- 주제 목소리(Voice)
- 일시 2002년 8월 24일 ~ 9월 1일(8일간)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통문화특구 (현 전주한옥마을)
- 위원장 천이두
- 총감독 임진택
- 공연팀 16개국 156개팀 4,500여명

2001

우리 전통음악을 기본으로 세계적 음악 전통과 현재의 흐름을 소개하는 창조적 축제

- 주제 소리사랑 온누리에
- 일시 2001년 10월 13일 ~ 10월 21일(10일간)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 위원장 천이두
- 총감독 강준혁
- 공연팀 15개국 142개팀 4,000여명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임원

명예조직위원장 송하진 | 전라북도지사
조직위원장 김 한 | JB금융지주 회장
집행위원장 박재천 | 집행위원장
부위원장 최동현 | 군산대학교국문과 교수
부위원장 선거현 |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상임위원 심인택 | 우석대학교국악과 교수
상임위원 김인태 |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위원

김경호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기원 |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이사장
김병오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교수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송광인 |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양진성 | 임실필봉농악보존회장
오태수 |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우종량 | 원광대학교 국악과 교수
유준택 | 전라북도외국어자원봉사회장
이병천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영호 | 전북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이화동 |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장병권 | 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항공학부 교수
정지영 |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정진욱 | 전주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지성호 | 작곡가, 전북대학교 겸임교수
최락기 |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주세계소리축제 STAFF

사무국 STAFF

사무국장 김승택
프로그램팀 한지영 | 프로그램팀장
이윤주 | 국내공연
이순미 | 해외공연, 음악의집
장은옥 | 해외공연, 더블스테이지
이정연 | 어린이소리축제, 음악창작소
Lai, Chien-Fu | 프로그램 인턴
박민선 | 모악당 사이트매니저
임병선 | 편백나무숲 사이트매니저
나영조 | 더블스테이지 사이트매니저
박종후 | 놀이마당 사이트매니저
최제, 형문수, 최윤성, 엄민아 | 통역
온일섭, 김정태 | 아티스트 수송

홍보기획팀 김희경 | 홍보기획팀장
이조은 | 언론홍보홍보기획
임마누엘 | 온라인홍보
조서연 | 디자인

마케팅사업팀 김신범 | 대외협력/마케팅총괄
이안나 | 티켓운영/마케팅
임형삼 | 모객/마케팅

행사운영팀 이덕우 | 행사운영팀장
정의창 | 상황실/자원활동가총괄
조보현 | 행사장관리/자원활동가운영
배태호 | 행사장장식
김나연 | 상황실/숙박/D
허 정 | 주차교통관리

무대운영팀 박용선 | 무대운영팀장
서지욱 | 찾아가는소리축제
김경훈 | 모악당
양태양 | 연지출
구국희 | 명인출
최형범 | 아외공연장
양승식 | 아외공연장 조감독
이상원 | 더블스테이지
강다혜 | 음악의집
노경한 | 편백나무숲
허 혁, 송진석 | 레드콘 음악창작소

행정지원팀 유은자 | 행정지원팀장
임수정 | 행정지원
정다이 | 행정지원

전라북도문화예술과 구형보 | 문화예술과장
백옥선 | 예술지원팀장
권현일 | 주무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STAFF

경영관리부 소진수 | 부장 정범수 | 과장

문화사업부 양승수 | 부장

무대기술팀 기계 박성일 | 팀장 이진수 강호영 이진성
무대 김익수 과장 이동수 | 과장 문광현 | 과장
김현준 김지현

무대운영팀 음향 박영모 | 팀장 남성훈 | 과장
정영모 정은석

조명 장정규 | 과장 박성진 | 과장
김동환 송두영 정일식

고객지원부 박홍재 | 부장
장병익 유경희 김영훈

공연 STAFF

음향 이진복 이동욱 백영빈 강금성
이훈재 정현석 소민수 김대경

조명 유봉준 안호중 이준영 김태식
최광로 노강섭 오찬식 양원영

무대·구조물 이종하 이성희 이광백 고현승

영상 박홍배 이성민 주동섭 김광석

소리 TV 고재훈

악기 이수춘 김세선 배종두 김나하비
김서학 이현수 박형용

발전기 박종철

특수효과 이규석

개막공연 및 모악당 STAFF

무대 진행 박기남 안경호 박수예 강인천
한동욱 연준원 송창현 김성우

무대디자인 김대한 김종현 황지혜 어윤호(수무대)

영상 우기하(MSUALKE) 최석주
허인철 김동진 박소라 조민수

영상디자인 장수호(Hyperstage) 이지훈 김태진 정은선

조명팀 임재덕 김혜진 신승열 김유빈
김요한 김민영 박상호(Shadow2)

촬영팀 변재범 김정은

음향팀 최동복(라이브미소) 양경혜 홍지은 송성현
심은정 기민정 강민수 주영호 김민환
김승식 김건웅 안승규 유제현 이슬 김훈

소리 MC

놀이마당 정확히

소리 TV 오선진 이지현

레드콘 분수대 무대 임동욱(DJ렉스)

소리천사

Angels for JISF, Volunteer

프로그램팀

국내공연 박민규 권혜정 김다운 김상윤 김슬기 김태원 김혜빈 박헌서 박현정 박희지 서원관 유인상 유지향 윤하영 이웅태 이태현 임수인 임은설 전세용 정광철 최은별 한형선 허 준

해외공연 Geanni Tityan Permata Bulan 강수경 강승훈 김기열 문하영 신은비 양정빈 오승우 이가영 이우석 정광식 최성훈 한세호

어린이소리축제 | 소리배움터 김로운 박윤정 신영호 윤현아 이정연 이화정 임보민 조덕진 함덕균 황서영

홍보기획팀

홍보안내 강연재 권호재 김민정 김석준 김정민 김한음 문치현 박준형 박혜미 박호진 서민영 서재원 안지현 양혜원 한은주

소리 TV운영 문예린 손현우 이경용 정지인 **프레스센터** 김한울 박지영 배한별 송현수 육태균 현시원

마케팅사업팀

강만구 곽승현 김관진 김동주 김산호 김서현 김세영 김유림 김윤하 김민정 김찬욱 나혜령 노동혁 박영서 소양섭 신범수 양규현 원다민 유민희 윤지선 이송아 조윤진 진오영 최주연

행정지원팀

통역·의전 김채현 최지수 **사무지원·리셉션** 김희수 박지원 송수호 유효열 이건희

행사운영팀

행사장운영 강유경 고영찬 고유미 곽한솔 구가영 김다정 김수정 김영민 김영준 김우빈 김의연 김정연 김 진 문관호 박경희 박선주 박수민 박주연 박희영 박희진 백종환 서종원 왕시연 유예슬 유채현 이동찬 이상희 이소희 이수지 이재경 이준배 이하늘 이효연 임석찬 임채린 장주영 전은미 정세일 정은경 정철웅 조수빈 조준범 주현정 차소영 차 훈 최다현 최대현 최동환 최자영 최정우 하 란 한규주 홍혜림

행사장관리 김성균 김세인 김영균 김정희 김태일 도지원 박진주 박초희 서차령 송승희 양승화 양혜영 엄정욱 유진실 육찬양 이기연 이종훈 이준명 이지윤 임정환 장하은 정동현 정지윤 최영원 최중현

무대운영팀

강경지 강문기 강창협 강현진 강한빛 고은하 공수연 권기현 권세련 김나연 김누리 김다혜 김도경 김무성 김민정 김보은 김성재 김성혜 김수희 김예진 김유찬 김일우 김재은 김종희 김주리 김준규 김준성 김지수 김지원 김진성 김태현 김현철 김희라 나지완 남현성 노세현 노지영 모민경 민주홍 박연지 박주형 박준영 박준하 박진현 박찬호 박치연 박 한 박희도 백승진 백지은 서지은 성재현 송윤철 송하영 신재혁 안희원 양문태 오진경 오혜인 우다영 위세은 유수진 윤찬영 윤태규 이경석 이정은 이규창 이다경 이도훈 이수민 이수영 이영석 이유진 이은아 이수환 이정훈 이지원 이현재 이흥권 임대진 임재석 임현우 장혜원 전미나 전주형 정금옥 정재훈 조아영 조아현 조인환 조희연 천승환 천현경 최고은 최하은 추승지 표형욱 한중희 한효송 황수민

협찬

Sponsor

